

겨울철 사슴관리

정 이 성

광주·전남 지회장

우리는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양록인들을 통해서 사슴의 사양과 관리를 많이 보고 들어왔다. 알고있는 내용일지라도 겨울철 사슴 및 사육장관리에 관하여 축주 및 관리인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한다.

1) 관리

① 사양관리

일반적으로 사슴은 9-12월 이내에 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때에 식용이 부진하고 싸움은 수시로 하게되어 격리시켜야 할 허약한 사슴, 부상을 입은 사슴이 발생된다.

드물기는 하지만 다쳐서 죽는 사슴도 발생된다. 각 농장별로 특수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1두씩 독실칸을 둔다면 여러면에서 사양이 유리할 것이다. 노동시간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을번식동물인 사슴에게 영양제, 영양블럭(미네랄블럭)을 공급하면 사육장내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를 공급하여 균형있는 영양공급 및 사양이 될 것이다.

② 사슴장관리

먼저 사슴장밖에는 사료포, 창고, 기계, 건조, 농후사료등등이 있는데 사료포의 화초는 옷자라서 동해를 입지 않도록 예취높이를 조절해야 됩니다. 기계역시 동해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외 농장별로 점검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으리라 본다.

둘째는 사슴장 내에서 보면 주로 사료조, 급수조, 철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철망 밑부

분을 보면 파헤쳐서 사슴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그곳을 계속 넓혀 농장을 이탈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가능한 빨리 시멘트를 이용하여 토양유실방지 빈공간을 막아야 한다. 또한 사료조의 청소, 급수조 청소, 물이 넘치는 지의 여부, 급수조로 연결되는 파이프가 지상노출로 인하여 동파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2) 축주 및 관리인 주의사항

가을에서 겨울의 긴 시간속에서 숫컷의 싸움이 맹렬하다. 사슴장내 출입은 경계를 잘 하셔야 한다. 중대형종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팡이나, 긴 방망이를 한 손에 들고 방어하면 좋다. 한편으로는 사슴을 자신으로부터 멀리 쫓아놓고 일을 보는 것이 좋다. 숫컷의 위용, 서열싸움, 암컷의 보호 등으로 인하여 거칠어지고 공격적인 사슴으로부터 다치지 않게 사육해야 할 것이다. 사슴에게 받쳐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의 이야기도 들었고 사슴의 머리에 들려 철망밖으로 대동맹이 찼다는 이야기도 들었으며 불행한 일이지만 금년에는 2건의 사망소식까지 접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슴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한다. 모르긴 해도 상당수가 작은 부상에서 큰부상까지 발생하는 일이 종종있는 것 같다. 이제 사슴 사육자라 하면 공격적인 사슴을 생각하면서 사육장을 출입하는 습관을 들여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자.

96년의 새해를 희망으로 이끌도록 하자.